

〈번역〉

아이리우스 아리스티데스(Aelius Aristides)의 레토릭과 법: 고전 시대의 뿌리와 현대의 관점들*

디미트리오스 카라디마스**

俞 燦 譯***

요 약

본 논문은 기원후 2세기에 활동했던 그리스의 연설가 아이리우스 아리스티데스(Aelius Aristides)의, 레토릭과 법의 관계에 관한 이론을 다룬다. 그 이론은 플라톤의 레토릭 비판에 맞서서 아리스티데스가 자신의 전문분야인 레토릭을 옹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작성한 플라톤에게: 레토릭을 옹호하여(*To Plato: In Defence of Rhetoric*: cf. 205-234 Behr편집판본)라는 긴 논문에 등장한다. 본 논문은 법과 레토릭의 관계에 대한 아리스티데스의 견해를 제시하고, 또한 그의 기본사상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를 고전 시대로 소급해 올라가면서 추적할 것이다. 또 아리스

* 필자는 본 과제의 수행을 위해 재정적인 지원을 해준 ELKE (the Special Account for Research Grants of the University of Athens, K. A. 70/11/118)에 감사를 표한다. 또한 본 논문의 기본적인 골격은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2011년 7월에 열린 제18차 국제 레토릭 사학회 학술대회(the Eighteenth Bienni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History of Rhetoric in Bologna, Italy, 18-22 July 2001)에서 발표되었음을 밝힌다.

[역자 주] ‘rhetoric’의 번역어 선택에 관하여 - 본 논문은 ‘rhetoric’이라는 개념이 그리스 고전시대로부터 아리스티데스가 활동하던 시대까지 어떤 의미로 이해되고 사용되었는가를 추적하는 것을 중요한 축으로 삼고 있다. 한편 ‘rhetoric’이라는 개념의 우리말 번역어로서 ‘수사학(修辭學)’, ‘연설술(演說術)’, 또는 ‘연술론(演述論)’이라는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단어들 중의 하나를 미리 선택할 경우, 우리말 단어들이 내포하는 뜻으로 인해서, 본 논문의 논점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데에 뜻하지 않은 난점들이 생겨날 우려가 있다고 역자는 판단하였다. 일단 그 용어를 중립적으로 전달하고, 필자의 논지를 쫓아서 그 개념의 역사적인 전개를 쫓아가는 것이 이 논문의 논의 전개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해서 우리말 번역어를 확정하는 일은 유보하고 그 발음을 옮겨서 적었다.

** Dimitrios Karadimas, 아테네 대학교 고전학과(Department of Classics, University of Athens).

*** 서울대학교 철학과 및 서양고전학 협동과정 강사, 영국 더럼 대학교 고전학 및 고대사학과 박사과정 수료(2012년 3월 현재).

티데스의 이론이 그 자신이 활동했던 시대의 다른 사상들과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도 탐색할 것이다.¹⁾ 논문의 말미에서 필자는 아리스티데스가 그의 이론으로 인해서 레토릭과 법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지지하는 현대 이론들의 선구자로 간주될 수 있음을 간략하게 주장할 것이다.

아이리우스 아리스티데스가 법과 레토릭에 대하여 저술한 것은 제2의 소피스트 운동이 한창이던 때(기원후 2세기 중반)이었는데, 당시에 레토릭은 제국의 동쪽 지역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고 법 또한 이미 독자적인 학문의 분야로서 독립적인 길을 가기 시작하였다. 특히 기원후 2세기에는 법률 문헌들이 두드러지게 많이 등장하였으며, 또 바로 이 시기는 로마법의 전범이 확립된 시기로 간주되고 있다.

아리스티데스는 레토릭이 입법 및 정의와 관련하여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가 하는 주제뿐만 아니라 레토릭의 기원이라는 주제를 다룬다. 아리스티데스에 따르면 평등과 정의는 사회에 내재하는 고유한 특성이 아니다. 강자들은 자신들의 힘을 사용하면서 그들의 의지를 약자들에게 강요한다. 바로 이러한 강자들의 탐욕에 대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고자 하는 약자들의 필요가 레토릭을 낳았다. 레토릭과 설득은 이와 같은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등장했다. 동시에 레토릭은 가르침과 배움을 사회에 도입하였고 사람들이 이성을 존중하고 따르도록 가르쳤다. 아리스티데스의 주장에 따르면, 법의 본성이 레토릭의 본성(사회의 정의를 보장하는 것이 그것의 사명이므로)과 동일하기 때문에 입법은 레토릭의 일부분이다. 하지만 레토릭은 입법과정을 법제화하고 법률들을 제정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수적이기 때문에 입법은 레토릭에 종속된다. 게다가 레토릭의 도움이 없이는 정의가 올바르게 실현될 수 없기 때문에 레토릭은 법적인 소송절차 전반에 (재판 및 심리 과정 중이나 그 전후로) 들어있을 수밖에 없다. 아리스티데스는 오직 정의로운 법률들만을 옹호하는 것이 레토릭의 본성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아리스티데스의 이러한 견해는 그의 레토릭을 옹호하여(*Defence of Rhetoric*)라는 작품을 통해 그가 견지하고 있는 견해, 즉 다른 모든 기술들도 레토릭의 효과적인 연설기술을 필요로 하며 레토릭이 다른 기술들과 협업을 할 때 그것이 다른 기술들의 효율성에 기여하는 바는 대단히 귀중한 것이라는 그의 더 일반적인 입장과 전적으로 일관된 것이다.

아리스티데스의 이론은 고전 시대의 위대한 사상가들(고르기아스, 이소크라테스,

1) 이 대목에서 “레토릭을 옹호하여(*In Defence of Rhetoric*)”라는 논문이 말은 장황하지만 피상적인 작품이어서 역사적으로 가치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었다는 점을 지적해 두는 것이 좋겠다. 그러한 점에 더해서 만약 우리가 그 논문에 등장하는 논의들이 시간의 흐름과 무관한 분위기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면, 이 작품은 당대의 구체적인 쟁점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Kennedy, G. A., *A New History of Classical Rhetoric*, Princeton 1994, 24를 보라. 아리스티데스의 작품들 일반에 관한 유사한 견해로는 다음의 것들을 보라. Wright, F. A., *A History of Later Greek Literature*, London 1932, 228. Livingstone, R. W., *The Mission of Greece*, Oxford 1928, 239.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과 사상을 활용하고 있다. 레토릭의 기원과 그것의 힘에 관한 그의 기본적인 생각은 고르기아스와 이소크라테스가 표명했던 유사한 견해를 발전시킨 것으로 보인다. 또 레토릭이 정의의 실현 과정에 행하는 역할에 관련된 그의 주요 논변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법률이란 연설을 끊임없이 실행하는 논변들이라는 주장과 입법이 (사법적인) 정의보다 우선한다는 주장은 플라톤의 생각에 기초를 두고 있다. 아리스티데스의 논문에서 그 논변을 전개하는 과정에 당대의 구체적인 관심사를 이끌어 들인 유일한 논점은 배심원들을 (그들은 연설가와 사형 집행관의 중간 위치에 놓이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폄하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아리스티데스의 논문 중에서 필자가 다루고 있는 부분을 저자 자신이 (작품 전체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적인 논문으로 성립할 수 있으며 또 당대의 실제 분쟁에도 적용될 수 있는, 독자적인 논변으로 간주했었음을 보여주는 표지들이 있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법을 레토릭과 연관 지어 이해하는 아리스티데스의 개념이 고대의 사상들과 적절하게 연결될 뿐만 아니라 법을 레토릭의 일부로 이해하는 현대의 개념과도 연결된다고 제안한다. Toulmin, Perelman, Viehweg, Esser 등과 같은 학자들이 제안한 잘 알려진 현대의 이론들은 암묵적으로든 명시적으로든 법을 레토릭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그들은 아리스티데스가 설정했던 틀 내에서 이론을 펴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법률교육 분야에서 현대의 추세는 아리스티데스의 이론이 지니는 교육적인 함축과 대단히 긴밀하게 이어져 있으며, 법을 레토릭과 연관 지어 이해하는 개념들은(예를 들어, White를 보라) 아리스티데스의 사상을 단지 되살려 놓은 것처럼 보인다.

도 입

고대 그리스 문화사에서 레토릭과 정의는 서로 대단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레토릭의 탄생에 대한 전통적인 설명에 따르면, 레토릭은 시칠리아 민주정치 맥락에서, 기원전 5세기의 중반 이전에 참주정이 전복된 이후,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서 등장했다.²⁾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코락스(Corax)와 티시아스(Tisias)는 사유재산의 소유권을 놓고 벌어지는 소송절차에서 소송당사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설득력 있게 말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수칙과 기술을 서술하려고 시도했다. 그것들의 기본적인 논점은 개연성에 근거를 둔 논변(the argument from probability)을 도입하는 것이었던 것으로 보이며,³⁾ 그

2) Cicero, *Brutus* 46-48. Quintilian, *Inst. orat.* III. 1. 8를 보라.

3) Plato, *Phaedrus* 273C를 보라.

것은 사실들이 판결을 내리기 위해 충분한 확고한 기초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 체계적으로 사용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경우에 정의의 실현(판결)은, 분명해 보이듯이, 구체적인 규정조항들을 갖춘 성문법률에 기초를 두기 보다는 불문(不文)의 관습법에 더 큰 정도로 기초를 두고 있다. 레토릭의 발명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이 받아들이고 있지만, 최근에는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⁴⁾ 하지만 합리적인 의구심이 있다고는 하더라도 전해져 온 견해가 레토릭과 소송절차를 그렇게 긴밀하게 함께 연결시키곤 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으며 고대인들 자신들이 그 관계를 이해했던 방식에 대해서 함축하는 바가 있다. 고르기아스(Gorgias)는, 그 또한 시칠리아 출신이었는데, 기원전 480년대에 태어났으며 기원전 427년에 아테네에 왔다. 비록 그 자신은 자신의 레토릭 기술을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하면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었고, 무엇이 정의롭고 무엇이 정의롭지 못한가 하는 점과 관련된 쟁점들만을 다루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플라톤은 그가 레토릭의 주제는 정의라고 주장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고르기아스의 이름을 따서 제목을 붙인 그 대화편에서 고르기아스와 소크라테스가 레토릭을 정의하고자 시도하고 있을 때, 그들은 우선 ‘레토릭은 설득의 장인’이라는 잘 알려진 정의에 도달한다.⁵⁾ 하지만 논의가 계속 진행되면서 소크라테스가 레토릭이 행하는 설득이 어떤 종류의 설득인가를 묻자, 고르기아스는 다음과 같이 답한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설득이라는 것은, 제가 방금 전에도 말했듯이, 법정에서나 대중들 앞에서 행해지는 그러한 것이며, 그것은 무엇이 정의로우며 또 무엇이 부정의한가 하는 그러한 것들을 다룹니다.”⁶⁾ 한편 이 대목에서 (고르기아스가) 레토릭이 무엇이 이로운 것이며 무엇이 명예로운가와 같은 점을 다룬다고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주목해 둘만하다. 여기에서 플라톤의 말은 레토릭과 정의 사이의 긴밀한 연관에 관한 전통적인 견해를 반영하고 있으며, 필자는 그것이 또한 역사적인 인물로서 시칠리아에서 레토릭의 탄생을 몸소 경험했던 고르기아스의 실제 견해를 전달하고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기

4) 예를 들면, 다음의 것들을 참조하라. Kennedy (위의 각주 1번을 참조하라), 7, 11, 30-34; Pernot, L., *Rhetoric in Antiquity*, Washington D.C.: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2005, 10-12; Schiappa, E., ‘Did Plato coin Rhetoric?’ *AJPh* 111, 1990, 457-470. Schiappa, E., *The Beginnings of Rhetorical Theory in Classical Greece*, New Haven 1999. Cole, T., *The Origins of Rhetoric in Ancient Greece*, Baltimore 1991.

5) Plato, *Gorgias* 453A.

6) *Ibid.* 454B.

올어 있다. 결국 후대에 레토릭이 널리 유포되고 급격하게 발전하는 시기에 이르면 고전 시대를 통틀어서 레토릭 (입문)교재들에서 가장 많이 분석되고 논의된 레토릭의 분야는 법정재판에 사용된 레토릭이었다는 점 또한 사실이다.⁷⁾

한편,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최초의 성문법은 드라콘(기원전 7세기 말)과 솔론(기원전 6세기 초)이 제정한 것이었다. 하지만 기원전 5세기 말 이전에는 실존 하던 법률들을 집대성한 공식적인 모음집은 없었다는 거의 확실하다. 이러한 사정은 곧 아테네 시민이 자신의 소송사건에 적용할 법을 찾아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⁸⁾ 도리어 대개의 경우 법정에서 진술하는 다수의 연설가들은 물론 관습법이나 공동체가 용인하던 (적어도 연설가가 주장하기로는) 원리를 들먹이곤 했기 때문에 사정은 더 복잡했다.⁹⁾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심할 여지 없이, 정의의 실현(정의를 실현하는 판결)은 법률과 관련된 학문(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보다는 레토릭과 더욱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법학은 고대 그리스에서 독립된 학문 분과로 성립되어 있지 않았고 후대에 로마시대에 와서야 발전되기에 이른다.

아이리우스 아리스티데스가 법과 레토릭에 대하여 저술한 것은 제2의 소피스트 운동이 한창이던 때(기원후 2세기 중반)이었는데,¹⁰⁾ 그 당시에 레토릭은 그리스어

7) 개별 분과로서의 레토릭이라는 기술이 발명되기 이전에 조차도 소송절차에서, 적어도 말이 사용되고 피고가 자신을 변론할 권리를 지녔던 경우에는, 연설(기술)이 사용되었음이 자명하다. 초창기 그리스 문헌들도 그런 예들을 보여준다. 일리아스(*Iliad* 18. 497-508)에서 아킬레스의 방패를 묘사하는 대목은 살인사건에 대한 재판 장면을 담고 있는데, 거기에서 각각의 소송당사자는 사건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진술하고 연장자들이 등장해서 연설을 하고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일리아스의 이 구절은 그리스 고대 법 연구자들이 많이 다루어 왔다. Bonner, R. J., and Smith, G.,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from Homer to Aristotl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30, 31-44; Wolff, H. J., 'The Origin of Judicial Litigation among the Greeks' *Tradition* 4, 1946, 31-87를 보라. 하지만 그러한 특징을 더 잘 보여주는 예는 소위 호메로스의 헤르메스 찬가(*Homeric Hymn to Hermes*, 기원전 6세기 말의 것으로 추정됨)에 등장한다. 거기에서 아폴로는 헤르메스를 재판관인 제우스 앞에 데려가는데, 이 장면에서 우리는 법정에서 레토릭을 이용한 연설을 사용하고 있는 더 오래된 사례 뿐만 아니라 개연성에 근거를 둔 논변(argument from probability)을 사용하고 있는 더 오래된 예제와도 대면하게 된다. 호메로스의 헤르메스 찬가(*Homeric Hymn to Hermes* 256)를 보라.

8) MacDowell, D. M., *The Law in Classical Athens*, London 1978, 41 이하를 보라.

9) 예를 들어, 루시아스(Lysias)의 것이라고 알려진 연설(*Against Andocides* 10)을 보면, 저자는 불문법이 우선해야 한다는 견해를 지지하기 위해서 페리클레스의 권위를 내세우고 있다.

10) 제2소피스트 운동이라는 용어는 오늘날 세가지 서로 다른 그러나 밀접하게 연결된 방

를 사용하던 제국의 동쪽지역에서 사회적, 문화적, 달리 말하면, 정치적인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동시에 법은 그 자체로 독자적인 길을 걷고 있었다. 기원전 1세기 이래로 레토릭에 대한 전문적 저술이 번성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법학에 대한 전문적 저술도 대두되고 있었다. 레토릭 저술은 전통적으로 연설가들의 작품이었으며, 법학 저술은 변호사 및 법률가들의 작품이었다.¹¹⁾ 특히 기원후 2세기에 와서는 제국의 이전 시대보다도 행정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고, 이는 곧 법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그리고 실제로 법률문헌의 두드러진 성장으로 이어졌다. 기원후 2세기는 로마법의 전범이 확립된 시기이다. 이후 세대에 끼친 로마법의 영향은 주로 이 시기 법률가들에 기인한 것이다.¹²⁾ 또한 이 세기에 법률교육을 담당하는 학교가 이미 등장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¹³⁾ 이러한 맥락 속에서 로마제국의 법은 도처에서 (도입)시행되었는데, 거기에는 로마법, 제국 법, 그리고 여러 지

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기원후 1세기에서 3세기 초에 이르는 시기를 의미하거나 또는 이 시기의 일반적인 문화적 환경(로마 치세 하에서의 그리스 문화)을 지칭할 수도 있으며, 물론 이 시기의 일반적인 문화적인 분위기에 특별한 색을 입힌 소피스트 운동 자체를 지칭할 수도 있다. 이 새로운 소피스트 운동의 주된 특징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예를 들면, 소피스트들은 레토릭을 직업으로 삼았으며 (그것을 교육 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적인 삶에 이용하였다), 여러 곳을 떠돌아 다니면서 군중들 앞에서 (주로 과시하는 성격의) 연설을 하였으며, 소피스트들이 주로 전념했던 주제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용한 언어(고전시대의 아티카 그리스어를 썼다)에서 분명히 드러나듯이 고전시대로 복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운동의 중심은 소아시아 및 그리스의 도시들에 있었다.

아이리우스 아리스티데스는 제2소피스트 운동을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인물이며 그의 생전에 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비잔틴 시대에 이르기까지, 큰 인기를 누렸다. 그는 동시대의 레토릭 전문가인 헤르모게네스(Hermogenes)가 자신의 작품에서 그 문체를 본받아야 할 예로 언급하고 있는 당대의 유일한 소피스트였다. 3세기의 작가로, 소피스트들의 전기를 저술한, 필로스트라투스(Philostratus)도 또한 아리스티데스를 소피스트들의 목록에 포함시켰고, 다수의 20세기 비평가들의 믿음과는 반대로, 아리스티데스가 극도의 정확성을 추구하였으며, 고대의 작가들에게로 관심을 돌렸고, 그는 선천적으로 재능을 잘 타고났으며 헛되게 장황한 말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의 문체를 정화하였다(소피스트들의 생애 *Lives of the Sophists* 582).

11) Crook, J. A., *Legal Advocacy in the Roman World*, London: Duckworth 1995, 42. Emmett, A. R., 'Hermogenes of Tarsus: Rhetorical Bridge from the Ancient World to the Modern' in: Gleeson, J. T. (ed.), *Rediscovering Rhetoric: Law, Language, and the Practice of Persuasion*, Sydney 2008, 114-162.

12) Gleeson (위의 각주 11번을 참조하라), 118-119를 보라.

13) 법률학교가 정확히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동쪽 지방에서 가장 유명했던 (베이루트(Beirut)에 있던) 법률학교는 230년대에 이미 법학 교육기관으로 잘 자리잡았던 것으로 보인다. Crook (위의 각주11번을 참조하라), 45를 보라.

방 행정단위에서 통용되는 지방법규들 간에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있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필자가 아는 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일반적인 의견의 일치가 있지 않지만, 법률체계의 중앙집권화가 증대되는 방향으로의 경향성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점 중의 하나는, 지방 행정단위에서 로마법을 집행하던 로마의 관리들 이외에도, 지역에서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던 지방법규를 집행하던 토박이 관리들도 있었다는 사실이다.¹⁵⁾ 또한 아리스티데스가 활동하던 시대는 법률가들이 점진적으로 (타 집단과) 뚜렷이 구분되는 전문가 그룹으로서의 소속감을 키워가던 시기이기도 했으며, 그 집단에서 전문적인 연설가는, 그들이 법을 본격적으로 공부하지 않았고 그들의 논변을 구성하기에 필요한 만큼만 배웠다는 이유로, 배제되었다.¹⁶⁾ 그러자 법률가들과 연설가들 사이의 오래 묵은 적대관계는 계속 살아있는 정도를 넘어서 더욱 심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⁷⁾ 하지만 동시에 법정연설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장 널리 행해지던 실무적 연설의 한 분야이었다. 필로스트라투스(Philostratus)는 그의 『소피스트들의 생애(Lives of the Sophists)』라는 작품에서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제시하고 있다. 그의 보고와 비문(碑文)들에서 발견된 정보에 따르면, 연설가들은 그 당시 소송절차에서 지방법규의 적용을 받는 상황에서도 로마 관리 앞에서 판결을 앞두고 연설을 하는 상황이면, 또는 심지어 제국의 법정에서 자기 지방(정부)의 이익이나 자기 자신의 이익을 옹호하고자 연설을 하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¹⁸⁾

¹⁴⁾ Cairns, J. W., and Du Plessis, P. J. (eds.), *Beyond Dogmatics: Law and Society in the Roman World*, Edinburg: Edinburg University Press 2007, 40-48를 보라.

¹⁵⁾ Wolff, H. J., *Roman Law: an Historical Introductio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51, p. 115.

¹⁶⁾ *Ibid.* p. 111. 하나의 독립된 집단으로서의 법률가들을 황제들이 선호했다는 사실도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중요하다. Stein, P., *Roman Law in European History*, Cambridge 1999, 16-17를 보라.

¹⁷⁾ Crook (위의 각주 11번을 참조하라), 38. 연설가들과 법률가들의 서로 중첩된 활동들과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Fantham, E., *The Roman World of Cicero's De oratore*, Oxford 2004, 102-130를 보라.

¹⁸⁾ Fantham, E., 'The Contexts and Occasions of Roman Public Rhetoric', in: Dominic, W. J. (ed.), *Roman Eloquence: Rhetoric in Society and Literature*, London and New York 1997, 11-130. Pernot (위의 각주 4번을 참조하라), 172를 보라.

아리스티데스의 이론에서 레토릭과 법: 고전 시대의 뿌리와 당대의 (환경) 요소들

아리스티데스가 법과 레토릭의 관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저술한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였다. 그의 이론은 플라톤에게: 레토릭을 옹호하여(*To Plato: In Defence of Rhetoric*)라는 긴 논문에 포함되어있는데, 거기에서 그는 플라톤의 『고르기아스(*Gorgias*)』편에 대해 답하면서 플라톤의 부정적인 견해에 반대하면서 레토릭이 진실되고 진정한 기술임을 보이려고 시도한다. 필자가 논하는 그의 이론은 위 논문의 중심 부분을 차지하며(Behr의 판본으로는 문단번호205-234에 해당하고, Dindorf의 판본으로는 pp. 63-71에 해당한다),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세 단계로 제시되고 있다. 첫 번째에서는 레토릭의 기원을 다루며(205-211), 두 번째는 레토릭과 입법(과정)의 관계를 다루고(212-221), 세 번째는 레토릭이 법의 집행(사법제도: *dikastikē*)과 관련해서 지니는 관계를 다룬다(222-234).

아리스티데스에 따르면, 레토릭의 기원은 인간의 본성뿐만 아니라 사회의 본성 과도 연관되어 있다. 인간 사회는 그 정의(定義)상 평등과 정의(正義)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해 주지 않는다. 그 반대로, 우리는 크게 두 집단의 사람들을 사회 안에서 구분할 수 있다. 더 우위를 점하고 있는 강자들은 힘(강제력)을 사용하며 다른 이들을 희생시키면서 더 많은 몫을 차지한다. 반면에 다수를 차지하는 약자들은 강자들의 전횡을 멈출 수 없어서 본의 아니게 굴복한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소수이지만 더 강한 자들의 탐욕에 맞서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고자 하는 대중의 필요가 레토릭을 낳았다. 힘의 부족은 설득의 출현으로 균형을 이루게 되었다. 비록 레토릭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는 자들에 맞서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발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또한 심지어 강자들의 집단에게 조차도, 더 약한 사람들이 제거되고 나자 거기에는 내부의 분쟁이 시작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이로운 것임이 판명되었다.¹⁹⁾ 그 논의는 결국 레토릭은 사회의 질서와 일관성 있

19) 여기에서 아리스티데스가 사람들(people)을 세부 범주로 나누면서 그 용어로 사회(내부의) 계급들을 지칭하고 있는가 (그런 경우라면 그가 사회 계급분화를 사회의 내재적인 성격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아니면 그의 주된 관심사는 단지 자신의 논변을 위해서 사람들을 분류하는 데에 있었던 것인가 하는 질문이 생겨난다. 비록 그 답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의 논의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필자는 그 문제에 몇 마디를 덧붙이고자 한다. 아리스티데스는 논의의 이 대목에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람들 간에 널리 퍼져있는 갈등들(이것들도 또한 사회통합

는 통합을 보장해 주는 유일하며 일반적이고 필수적인 처방책이며, 사회자체와 인류를 구제해 주었다는 결론에 이른다. 아리스티데스는 (그러한 사회적) 문제의 본성 때문에 해결책은 (사회의) 모든 부분들에게 동등하게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는²⁰⁾ 점과 이것이 사회에 조화를 확립하고, 어떠한 종류의 힘과 강제력에 의거하지 않고 오직 이성에 의해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레토릭은 설득뿐만 아니라 이성과도 연관을 맺게 되며, 그것은 나라의 범위에서만 아니라 가정의 영역에서도 조화(융화)를 촉진하는 데도 관련을 맺게 된다. 그 논문의 첫 번째 부분을 맺기에 앞서서 아리스티데스는 짧지만 단호하게 레토릭의 교육적인 의무를 언급하고 있다. 그것은 사회 내에서 가르침과 배움을 건네주고 고취하는 능력(faculty)으로서 교육과정을 받아들이는 만

의 기반을 약화시키게 될 텐데)보다는 일종의 계급투쟁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다. 그가 말하는 두 기본 범주의 사람들은 정치 경제적인 힘의 관점에서 차이가 난다. 문단 206에서 그가 사용하는 어휘는 문제의 상황을 사회 계급들간의 갈등이라는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다. 즉 우위에 있는 상층 계급은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더 많은 몫을 취하지만, 반면에 하층 계급은 그들이 효율적으로 저항할 수 없기 때문에 굴복한다. 아리스티데스는 또한, 위에서 언급했듯이, 상층 계급 내부에 존재하는 내적 갈등이 결국에는 인류가 완전히 멸종되는 귀결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논의를 계속 쫓아가면, 특히 그가 스파르토이(spartoi, 카드모스가 용의 치아를 씨앗으로 뿌렸는데, 거기에서 싹이 터서 자라난 전사들로서, 땅에서 태어난 후에 서로 싸우다가 다섯 명만 제외하고 전사했다고 한다. Pseudo-Apollodorus, *Bibliotheca* III. 22 ff) 신화를 이끌어 들이는 구절에 이르면, 집단/계급 구분과 갈등에 대한 상황묘사는 모호해진다. 이 신화를 언급하면서, 아리스티데스는 예외적으로 살아남은 다섯을 언급하지 않는데, 그것은 그가 인류가 완전히 절멸될 위험성을 보여주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또 그 신화는 논의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벌어지는 혼돈 상태로 이끌어다 놓는다. 하지만 이것이 아리스티데스가 집단/계급이라는 용어를 써서 보여준 이전 논의의 중요성을 취소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점은 그가 사회 계급분화를, 만약 레토릭이 개입하지 않으면 완전한 파멸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사회의 내재적인 성격으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는 불가피한 갈등의 순간에서부터 그 신화를 유비로 끌어들이어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그것은 그 결말이 무엇이 될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고대 사회에서 계급갈등이 흔히 종교적인 형태를 띠고 있었으며 신화적으로 표현되었다는 견해에 관해서는 다음의 것들을 보라. Hamilton, P., *Knowledge and Social Structure*, London 1974, 45. Croix, G. E. M., *The Class Struggle in the Ancient World*, Cornell Paperbacks 1989, 49-69.

- 20) 이 경우 아리스티데스는 세 집단의 사람들을 구분하고 있다. 그 정의(定義)상 서로 갈등관계에 놓여있는 강자들과 약자들 이외에, 제3의 집단으로서 (온건) 중도파가 있는데 이들은 강자들의 일부분인 것으로 보이며 ‘자발적으로 정의를 (존중하여) 지키는’ 모든 이들을 포괄한다. 아리스티데스에 따르면, 레토릭은 강자들이 범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저지하거나 그들을 즉각 현장에서 처벌해야 하며, 약자들에게 두려움에서 해방된 삶을 마련해 주어야 하며, (온건) 중도파에게는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209).

한 절차로 만들어 놓는다. 동시에 그것은 사회로 하여금 비합리적인 것을 회피할 뿐만 아니라 증오하고 무엇보다도 이성을 따르도록 가르친 능력(faculty)이다.

레토릭과 입법(과정)간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위에서 언급한 세 단계 중 두 번째 단계로) 아리스티데스는 입법이 레토릭의 일 부분이며 모든 점에서 그것에 종속된다는 점을 발견한다. 그의 논변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첫째, 법의 바로 그 본성은 레토릭의 본성과 동일하다. 법은 정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방식으로 인간사회를 더욱 안전하고 안정되게 만들어 준다. 한편 정의는 사회에서 정의를 (존중하여) 지키는 사람들이 사악하고 버릇없는 자들을 이기는 경우에만 확보된다. 그는 법률의 제정이 무엇보다도 약자들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 더 강하고 탐욕스러운 자들은, 그들이 이성과 레토릭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강자들의 목적은 약자들을 이기는 것이지 그들을 설득하거나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다. 둘째, 레토릭은 입법과정을 도입하고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수적인데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i) 입법가는 법률로 인해서 이득을 얻게 될 약자들을 설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법에 필수적이다) 강자들까지도 그들이 법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가능하다면)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 자체가 항상 설득력 있는 논변을 필요로 한다. 아리스티데스는 이 대목에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레토릭이 설득(의 원칙)을 충실히 지켜야 함을 지적하고 있으며 (강제로 물리력을 써서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또 더불어 그것의 교육적인 차원을 지적한다(설득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레토릭은 힘(폭력)을 쓰려는 성향을 지닌 자들을 도덕적으로 개선시키는 일을 해낼 여지도 있다). (ii) 법률 자체는 다름 아닌 글로 쓰여진 형태로 제시된 논변들이며 그것들이 쓰여져 있다는 점에서만 ‘살아있는’ 논변들과 차이가 난다. 그것들은 연설가의 작품이며, 일단 한번 기록되고 나면, 끊임없이 연설 기술을 수행한다(ρητορεύουσι). 이것이, 아리스티데스에 따르면, 법률이 레토릭의 부분임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논변이다. 법률은 우리가 연설가의 연설에서 발견하는 것들을 이야기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어떠한 점에서 법률은, 전시(戰時)에든 평화 시에든, 개인적으로든 공동으로든,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과 우리가 삼가야 하는 것을 구분해서 이야기해 주며, 법률은 나라가 망하는 일 없이 다스린다”(218).

위에 언급한 세 단계 중에서 마지막 단계의 논의는 정의의 실현(사법제도의 집행)이라는 문제로 이어진다. 레토릭은 다시 한번 (사법집행) 소송절차의 전 과정에

결쳐서, 재판 이전과 그 진행과정 중에서뿐만 아니라 판결이 공표된 이후에까지도, 필수적인 것으로서 제시된다. 재판관(및 사법제도)은 올바름을 유지하고(‘권리를 옹호하고’라고 옮길 수 있겠는데 이 맥락에서 권리라는 개념을 쓰는 것이 적절한지는 더 검토해볼 여지가 있어서 위와 같이 옮긴다 — 역자 주) 법을 적용하는 임무를 위임 받았지만, 레토릭의 도움이 없이는 이 임무를 완수할 수 없다.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재판관은 각각의 개별 사건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 아리스티데스가 설명하고 있듯이, “레토릭은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조사하며 재판관은 조사가 끝난 이후에 판결을 내린다”(223). 하지만 심지어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도, 갖가지 이유로 (이를 테면 무지 또는 지각 없음으로 인해서) 판결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을 레토릭이 다루어야 하며 선고된 판결이 정당한 것임을 설득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레토릭은 계속해서 필수적인 채로 남는다.

이 논의의 마지막 부분(227-232)은 그가 논의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아리스티데스의 기본적인 신념을 옹호하는 데에 바쳐져 있다. 레토릭은 폭력을 설득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발명되었고, 이러한 방식으로 사회에 조화와 정의를 가져온다. 만약 그것이 정의가 걸린 문제들을 힘으로(강제로) 처리하려고 하는 강자들의 주장을 지지하고 ‘극도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법이 있다고 용인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 자신의 말로 말미암아 자멸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라면 다른 이들을 가르칠 능력을 지닌 사람인 연설가는 이런 권리를 빼앗긴 것이다. 아리스티데스는 이 대목에서 레토릭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전제적인 체제(정권)를 지닌 사회와 레토릭이 자유롭게 작동하는 사회를 구분하는 것 같다.²¹⁾ 레토릭과 힘 있는 강자들의 독단은 공존할 수 없다. 힘(권력)이 무엇이 ‘정의롭고’ 또 ‘부정의한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레토릭이 있을 자리가 없다. 레토릭이 정의로운 법률을 옹호한다는 사실은 레토릭의 본성을 이루는 것이다. 이 견해는 다음 구절에 압축되어 들어있다. “법과 정의가 있는 곳, 여기에 레토릭과 연설이 있다.” 그 논의 전체는 다음과 같이 끝을 맺는다(233): “법률,²²⁾ 정의, 그리고 연설은 하나의 동일한

21) 레토릭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는 전제적인 정권에 의해 다스려지는 사회라는 점은 문단 237-238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22) 아리스티데스는 법률(*nomoi*)과 입법(*nomothetik*)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한 부분에서(문단 227-232) 핀다로스의 시 구절에 기초를 두고 논의하고 있는 대목을 예외로 하고는, 법률을 줄곧 복수형태로 ‘*nomoi*’로 표현한다. 아리스티데스가 인용하여 논의하고 있는 핀다로스 시 구절은 플라톤이 『고르기아스』 편에서 (등장인물) 칼리클레스

중에 속하며 동일한 본성을 지닌다. 하지만 비록 그것들이 세 가지 능력들(faculties)이지만, 그것을 논하면서 내가 주제에서 벗어났었지만, 오로지 레토릭만이 모든 영역을 차지한다. 왜냐하면 레토릭을 입법(기술)이 필요로 할 때 레토릭은 입법에 앞서며, 정의의 기술(사법제도)이 레토릭을 필요로 할 때 레토릭은 또한 정의의 기술(사법제도)에 앞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레토릭은 우선 입법(기술)을 포위하며, 그 다음으로는 정의의 기술(사법제도)을 같은 방식으로 포괄한다. 레토릭은 처음이자 중간이자 마지막이다. 동시에 자신을 양자 사이에 놓으면서, 또 양자를 가운데에 놓는다. 그리하여 셋 모두는 레토릭을 접착제로 삼아서 확고하게 하나로 뭉쳐지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아리스티데스의 이러한 이론은 그가 “레토릭을 옹호하여(Defence of Rhetoric)”라는 작품을 통해 그가 견지하고 있는 견해, 즉 다른 모든 기술들도 레토릭의 효과적인 연설(기술)을 필요로 하며 레토릭이 다른 기술들과 협업을 할 때 그것이 다른 기술들의 효율성에 기여하는 바는 대단히 귀중한 것이라는 그의 더 일반적인 입장과도 일관된 것이다. 이 견해의 짝은 플라톤의 『고르기아스(Gorgias)』편에서 처음으로 발견되는데,²³⁾ 그것이 역사적인 인물로서의 고르기아스의 유사한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거기에서 고르기아스는 레토릭이 모든 힘을 끌어 모아서 자신의 지배 아래에 둔다고 지적하면서, 어떤 의사가 자신이 제안한 치료를 환자가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데 실패하고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연설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예를 끌어들이고 있다. 아리스티데스는

(Callicles)가 말하는 것으로 설정해 놓은 것이기도 하다(Gorgias 484B). 이 대목에서는 법이 단수형태로 ‘nomos’라고 언급되고 있다. 또한 아리스티데스는 자연법과 시민들이 정한(시민들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civil laws를 이 맥락에서 민법이라고 옮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며, 맥락을 살리기 위해서 시민들이 정한 법으로 옮겼다 - 역자 주)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지만, 필자가 보기에, 그는 처음에는 자연법을 염두에 두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시민들이 정한 법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가 레토릭과 동일한 기원을 지녔으며 사람들이 서로서로를 나쁘게 대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법률을 (문단 212-213) 언급하면서 법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을 때, 그는 도덕적 자주권과 정의를 내재적인 특성으로 지니는 자연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고르기아스』 편에서 칼리클레스가 지니고 있는 자연법 개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지만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면, 아리스티데스는 시민들이 정한 법률, 즉 인간 이성이 창조하였으며 특정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적용되는 다양한 실정법을 주제로 다룬다. 하여튼 레토릭은 아리스티데스에 따르면 두 경우 모두에 필수적이다. 레토릭은 자연법의 본성을 드러내 주며, 그것의 적용이 필수적임을 설득하고, 나라 안에서 특정한 법률들을 제정하고 집행하며 적용한다.

23) Plato, *Gorgias* 456 A.

물론 예술의 예에 만족하지 않으며 군사전략(기술), 조타술, 그리고 모든 장르의 문헌들을 예로 사용한다.²⁴⁾ 하지만 연설가가 다른 기술들의 대표들과 협업하는 일만 이야기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그는 레토릭이 다른 기술과, 그 둘이 동일한 사람 안에서 동시에 만났을 때, 행하는 협업을 강조한다.²⁵⁾ 이러한 방식으로 그는 훌륭한 레토릭 교육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레토릭의 위력을 한층 더 강조한다.

만약 우리가 법과 레토릭의 관계를 아리스티데스의 더 일반적인 입장과 관련지어 더 넓은 맥락에서 바라보면, 이 관계의 특이한 성격이 더 분명해진다. 첫째, 입법기술과 정의의 기술(사법제도)은 레토릭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관심사 및 목적을 (정의를 집행하고 사회 내의 조화를 성취하는 일) 공유한다. 본성상 레토릭의 성격을 지니지 않는 다른 분야의 기술들과 학문들에서는 사정이 그렇지 않다. 둘째, 레토릭이 다른 기술들과 결합하는 경우에 이것은 그 기술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지만, 입법과 정의(사법제도)의 경우에는 분명히 그 사정이 다르다. 레토릭은 입법 및 사법과 이미 같은 집에 거주하며 그 자체의 목적을 추구한다. 레토릭은 정의를 그 궁극적인 주제로 삼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아리스티데스가 여기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들의 기원을 좀더 자세히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아리스티데스 이론의 첫 번째 주된 논점(말하자면, 레토릭이 사회 정치적인 적대감이 상존하는 영역에서 생겨났다는 점)은 레토릭이 사람들이 나라를 건설하게 하고 법률을 제정하게 하고 기술들과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을 발견하도록 했으며, (그리하여) 인류 문명이 레토릭의 결과로서 나왔다는 이소크라테스(Isocrates)의 기본적인 생각에서 발전되어 나온 것으로 보인다.²⁶⁾ 이 생각의 뿌리는 설득이 거부할 수 없는 힘을 지닌다는 고르기아스의 신념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²⁷⁾ 그러나 법과 레토릭의 관계에 관한 두 번째 논점은 그 이면에 더 풍부하고 더욱 복잡한 역사가 개입되어 있는 것 같다. 그 생각은 플라톤이 (또는 어쩌면 고르기아스 자신이) 『고르기아스(Gorgias)』편에서 도입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플라톤은 고르기아스가 레토릭을 무엇이 정의롭고 무엇이 부정의한가 하는 점에 대해서 법정에서나 그 밖에 군중들

24) *DRhet.* 412-416, 427-428.

25) Karadimas, D., *Sextus Empiricus against Aelius Aristides: The Conflict between Philosophy and Rhetoric in the Second Century AD.*, Lund 1996, 221-222.

26) Isocrates, *Nic.* 6, *Antid.* 254.

27) Gorgias, *Encomium of Helen* cf. 8-14.

이 모인 곳에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기술이라고 정의하도록 만들어 놓았다.²⁸⁾ 이 견해는 정의가, 레토릭이 행해지는 것이 법정에서인가 또는 군중집회에서인가 하는 점에 상관없이, 레토릭의 궁극적인 주제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이 문제에 세밀한 주의를 기울였던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였다. 그는 법과 레토릭의 관계를 그의 『레토릭(Rhetoric)』에서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레토릭의 기본 주제는 논의 중인 사안과 관련해서 증거(증명)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전의 레토릭 안내서 저자들은 이 점을 다루는 데 실패했다. 그들은 증명보다는 부수적인 장치에 불과한 문제들(편견, 동정심, 분노 등을 불러 일으키는 일)에 치중했거나 증명의 몸통인 *enthymemes* (마음에 품은 의도를 의미하는데, 삼단논법에서 전제 중의 하나가 생략된 축약된 형태의 삼단논법을 지칭하는 용어로도 쓰인다 - 역자 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편견, 연민, 분노, 그리고 유사한 감정들을 불러 일으키는 일은 지금의 논의 주제의 본질과는 아무 연관이 없으며 그것은 주로 재판관을 향해서 그의 영혼과 판단에 영향을 끼치려고 시도하는 것일 뿐이다. 그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떤 것이 중요한가 또는 중요하지 않은가, 정의로운가 정의롭지 못한가 하는 점에 관해서 입법가가 판결을 내려 놓지 않은 모든 경우에 그것은 재판관이 판결을 내릴 문제이다. 재판관에게 지시를 내리는 것은 소송당사자들이 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입법가의 판단이 하나의 개별 사안에만 적용되지는 않으며, 그것은 보편적이며 미래에도 적용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일어나지 않았는지, 일어날 것인지 일어나지 않을 것인지, 현재 그러한지 그러하지 않은지에 관한 질문들은 필연적으로 재판관에게 남겨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입법가가 그러한 질문들까지 예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²⁹⁾ 결국 아리스토텔레스는 논리(logic)와 변증술(dialectic)의 차원을 더해서 레토릭이 사용하는 말이 지닌 증거 제시 능력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또는 무엇이 재판(심리)에 붙여진 경우에 사실을 발견(확정)하는 데에 레토릭이 행하는 역할을 강조했던 첫 번째 인물이었다.³⁰⁾ 그리고 이것은 아리스티데스도 마찬가지로 주장하는 점이며 그것에 기초하여 정의의 실현(사법제도의 집행)에서 레토릭이 행하는 역할에 관련된

²⁸⁾ Plato, *Gorgias* 454B. 또한 위의 각주 6번과 해당 본문을 보라.

²⁹⁾ Aristotle, *Rhetoric* 1354 a 12-1354 b 22.

³⁰⁾ 다음의 것도 참고하라. Anapol, M., ‘Rhetoric and Law: An Overview’, *Today's Speech*, 18, 1970, 12-20, p.12.

자신의 주요 논변을 편다. 물론 아리스티데스는, 단지 자신의 견해를 일반적으로 서술하는 데에 관심이 있을 뿐이지 전문적인 세부 사항을 분석하는 데에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았기에, 그 문제를 확장하지는 않는다.

게다가 플라톤은 『파이드로스(Phaedrus)』편에서 기록된 연설뿐만 아니라 법률도 레토릭에 속한다는 것을 소크라테스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바로 그 구절을 아리스티데스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³¹⁾ 법률은 끊임없이 연설을 수행하는 논변들이라는 아리스티데스의 주장은 입법활동을 레토릭과 연설가들에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허락해 주고 있는 이러한 생각의 연장선 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생각은, 연설가가 (그가 의도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연설가인데) 가장 말 잘하는 사람이며 또 그는 동시에 가장 훌륭한 부류의 사람이라고 믿었던,³²⁾ 그리하여 올바르게 정의로운 법률의 제정이 확보된다고 믿었던 아리스티데스의 생각을 예견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정도로까지 낙관적으로 보지는 않았으며 법률이 모든 것을 가능한 한 많이 정의하고 가능한 한 적은 것을 재판관들의 몫으로 남겨두기를 권장했다. 또한 그는 올바르게 생각하며 법을 제정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찾아내기는 어려우며 그런 사람들을 소수만 찾아내는 것이 더 쉬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³³⁾ 그렇다면, 재판관이 해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아리스토텔레스는 레토릭과 연설가의 능력이 미치는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며 또 동시에 그는 입법을 레토릭이 행하는 일로 간주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분명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리스티데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접근법을 건드리지 않고 스쳐지나 가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보적인 태도를 무시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아리스티데스는 입법만이 레토릭의 일부분이라고 서술하면서 그리고 법의 사명을 일종의 전투에 비유하면서 입법이 주된 임무를 담당하고 사법(제도)은 도움을 제공하러 나중에 등장하는 것으로 묘사하면서, 입법이 사법(제도)보다 우월함을 은연중에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입법이 사법보다 우선한다는 생각은 플라톤이 『고르기아스(Gorgias)』편에서 처음 내놓은 것이었다. 그것은 여러 기술들을 분류하면서 입법을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는 잘 알려진 구절에 암시되어 있고,³⁴⁾ 그리고 나중에 대화편의 결말을 향해 가는 대목에서 명시적으로, 비록 대단히 강조하고 있지는 않지만,

31) Plato, *Phaedrus* 258A-C.

32) *Defence of Rhetoric* 429.

33) Aristotle, *Rhetoric* 1354 a 33-1354 b 3.

34) Plato, *Gorgias* 464B-465D.

서술되어 있다.³⁵⁾ 그 논의 구절에서 ‘정의(justice)’라는 개념을 사법제도(judicature, 정의를 집행함)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면서 그것에 개별 덕목으로서의 일반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이런 생각을 아리스티데스는 아마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가 곧 아래에서 보게 되겠지만, 그는 또 다른 맥락에서는 다른 의견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서 필자가 언급하려고 하는 마지막 논점은 아리스티데스가 설득이라는 개념을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성(logos)과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물론 그의 계획 전체를 위해서 일차적으로 중요하다. 왜냐하면 플라톤은 레토릭이 단지 이성과는 무관한 숙달된 솜씨(*ἀλόγος τριβή*)일 뿐이라고 비난했었기 때문이다. 아리스티데스는 자신의 논문 앞부분에서 (137-175를 참조하라) 그 문제를 상세하게 다룬다. 필자가 보기에, 이 대목에서 아리스티데스는 이성(logos)이라는 말로 건전한 추론 능력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그 능력은 사람들이 (i) 세상에서 자신들이 차지하는 위치를 이해하고, (ii) 그들이 맞닥뜨려야 할 문제들을 정확히 집어내고 그것이 자신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이해하고, (iii) 그것을 해결하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해 준다. 바로 이런 추론 능력은, 아리스티데스에 따르면, 진리와 정의라는 기본 원리들에 (이성logos은 여기에서 본래적인 의미를 지닌다) 의해서 규정된 영역 내에서 작동한다. 이러한 영역 내에서 이성(logos)은 필연적으로 유연성을 지니며 그리하여 인간 삶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고려할 수 있게 된다. 아리스티데스가 제시하는 이러한 이성(logos)의 의미는 이소크라테스(Isocrates)가 지지했던 실천적 지혜(*φιλοσοφία*)라는 개념을 다시 각색한 것일 뿐만 아니라 좀더 구체적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적 추론 개념의 싹을 담고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지금 논의하고 있는 아리스티데스 논문의 이 부분이, 플라톤의 견해에 답하면서 레토릭을 옹호하는 일반적인 관심사와는 별도로, 만약 적절한 논의가 그런 일을 요청한다면, 독자적인 논변으로 성립할 수 있다고 저자 자신이 간주했다는 몇 가지 표지들이 있다. 첫째, 이 부분에는 (인과관계에 대한) 원인을 설명하려고 도입한 신화가 없으며 논변(구성)을 논리적인 논증에만 국한시키고 있다는 것이 한 가

³⁵⁾ Ibid. 520B “그렇지만 사실은 임법기술이 사법기술(*dikastikē*)보다, 그리고 체육기술이 의술보다 더 훌륭한 정도만큼 소피스트 기술(*sophistic*)이 레토릭보다 더 훌륭하다(*kallion*).”

지 표지인데, 이것은 그가 인간 및 사회의 본성에 좀더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레토릭을 옹호하여(Defence of Rhetoric)”라는 작품은 인류 문명의 기원에 관한 그러한 신화를 담고 있으며, 그것은 레토릭이 없이는 인간 사회가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을 (프로메테우스는 인간들에게 외경심과 정의 대신에 레토릭을 가져다 준다) 보여줌으로써 여기에 개진된 이론을 지지해 준다. 하지만 아리스티데스는 이 신화를 나중에 가서 적합한 맥락에서 (문단 394-402) 끌어들이기를 선호한다.³⁶⁾ 그러나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곳에서 아리스티데스는 철학자나 소피스트들이 자신들의 견해를 지지하기 위해서 신화를 불러들이는 흔한 방식을 (우리는 플라톤의 『프로타고라스(Protagoras)』 320C323A 구절이나 이소크라테스 (Isocrates)의 연설집 *Panegyricus* (28-42)에 등장하는 유사한 신화들을 쉽게 떠올려 볼 수 있다) 배제하고 있으며, 그가 그런 식으로 논의를 전개했으리라고 볼 만한 유일한 힌트는 그가 스쳐 지나가면서 신들을 언급하는 다음 구절뿐이다(207): “그러므로 이러한 상태로 인해서 사람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 어쩌면 신들이 인간들을 위해서, 그러한 것(레토릭)을 발견하였다...” 더 나아가, 아리스티데스는 이 구절의 말미에 (위에서 인용했던 문단 233) 이르러서 자신의 입장을 요약하면서 자신이 결길로 나갔음을 인정하고 있고, 법, 정의, 레토릭에 관한 자신의 통합적인 이론이 진정으로 중요하다고 간주하면서 또한 그것이 플라톤의 레토릭 비난을 반박하는 데에 정말로 기여하지는 않는다고 (그것이 주된 논지에서 벗어나면서 삽입되었기에) 인정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그러한 추정을 지지해 주는 논점이 하나 더 있다. “플라톤에게: 네 인물을 옹호하여(*To Plato: In Defence of the Four*)”라는 그의 논문은 “레토릭을 옹호하여”보다 더 논쟁적인 작품인데,³⁷⁾ 거기에서 아리스티데스는 한 구절을(588-604) 할당하여 체육기술이 의술보다 더 훌륭하며, 입법(기술)이 사법(기술)보다 훌륭하며, 소피스트 기술이 레토릭보다 훌륭하다는 플라톤의 주장을 논의하고 있다. 그는 플라톤의 주장을 논박하려고 시도하면서 반대 견해를 옹호하고

³⁶⁾ 아리스티데스는 여기에서 레토릭과 이성에 대한 찬양을 길게 하고 있는 중이며, 그가 제시하고 있는 신화에 따르면, 신들이 사람들에게 레토릭을 전해줄 때까지 사람들은 무력한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 신들은 레토릭을 오직 고귀한 본성을 지닌 자들에게만 주었지 모든 사람들에게 준 것은 아니었다.

³⁷⁾ Karadimas (위의 각주 25번 참조), 28. “플라톤에게: 네 인물을 옹호하여(*To Plato: In Defence of the Four*)”라는 이 작품의 목적은 아테네의 위대한 정치가 네 사람, 즉 밀티아데스(Miltiades), 테마스토클레스(Themistocles), 키몬(Kimon), 페리클레스(Pericles)에 대한 플라톤의 비판에 답하려는 것이었다.

있다. 입법과 사법의 관계에 관해서 그는 입법이 사법(정의)보다 우월하다고 간주해야 한다는 플라톤의 견해를, 실제로 벌어지는 일을 보면 입법은 단지 정의의 일부일 뿐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쓰고 있다. 이어지는 논의를 보면 아리스티데스는 여기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영혼의 덕목으로서의 정의이지 실제로 정의를 집행하는 일(사법체도의 운영)이 아님이 분명하다.³⁸⁾ 여기에서는 그와 같은 (입법이 사법(정의)보다 우월하다는 플라톤의 견해를 논박하려고 의도하는) 일련의 논변들을 우리가 지금 논의 중인 “레토릭을 옹호하여(Defence of Rhetoric)”의 구절에다가 이끌어 들이는 일을 멀리하고서, 우리가 위에서 보았듯이, 아리스티데스는 암묵적으로 입법의 우선성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두는 것이 좋겠다. 그 논문의 이 구절은 그 문제에 대한 아리스티데스의 기본적인 견해를 표현하고 있지만, 플라톤의 주장을 반박하고 레토릭을 옹호하기 위해서 즉석에서 구성된 논변들은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레토릭, 입법, 사법이라는 세 분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것들의 상대적인 위상에 관련된 당대의 논의에서 이 노선을 따르는 논변이 사용되었다는 것이 사실일 수도 있겠다.

38) 아리스티데스에 따르면, 법률을 통과시키는 일, 투표, 정당한 것을 지지하는 일, 자문, 선출, 심지어 신들 자신들에게 합당하게(예절 바르게) 행동하기, 이와 같은 일 모두가 ‘정의’라는 한 개념으로 환원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는 사실상 플라톤이 주제를 대단히 단순하고 도식적인 방식으로 다루었다는 이유로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즉 그는 몸을 돌보는 두 가지 방법(체육기술과 의술) 내놓았고 그 다음에 다시 영혼을 돌보는 두 가지 방법(입법기술과 사법기술)을 내놓았다. “그러나 도대체, 신들에게 맹세컨대, 우리의 지혜는 어디에 있고, 절제는 어디에 있는가? 용기는 어디에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들이 늘 덕의 이와 같은 네 부분인, 지혜, 절제, 정의, 용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데, 이것들 중의 하나인 정의를 - 그(플라톤)는 입법을 (그것은 정의의 부분인데) 덧붙임으로써 - 두 배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다른 부분들은 모두 무시했다”(597). 플라톤이 두 가지 분과(입법과 사법)를 지닌 하나의 정치기술에 대해서 서술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치기술의 사명은 영혼을 최상의 상태가 되도록 돌보는 일이며, 이 점이 아리스티데스가 논의와 용어의 의미를 확장하며 자신의 비판으로 나아가도록 허용해 준다. 그리고 플라톤은 정의(dikaiosynē)라는 용어를 네 가지 진짜 기술과 네 가지 가짜 기술을 제시하면서 사용하지만, 사법기술(dikastikē)이라는 용어는 기술들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문장에서 사용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위의 각주 35를 보라). 반면에 아리스티데스는 “레토릭을 옹호하여(Defence of Rhetoric)”라는 작품의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구절에서 주로 사법(dikastikē)(이 단어는 영어로는 여전히 justice로 표현할 수 있다 - 역자 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dikaiosynē라는 단어는 첫 번째 분절에서 한번 문단210에 등장하고, 두 번째 분절에서도 한번 문단214에 등장한다). 반면에 “네 인물을 옹호하여(Defence of the Four)”의 해당 논의의 구절에서 그는 dikaiosynē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앞서서 언급했던 시사점들에 근거해서, 아리스티데스에 대한 우리의 현재 논의가 그것 자체로 독립적인 논변으로 성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경우에도, 이 논변이 당대 사회에서 행해지던 논쟁점들을 포괄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와 관련해서 시사하는 바가 도대체 있는가 하는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 만약 우리가 아리스티데스의 몇몇 표현들을 로마의 권력에 대한 애국적인 반응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하는 유혹에 굴하지 않는다면,³⁹⁾ 그런 경우에 당대의 환경적 요소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유일한 시사점은 정의의 기술(사법기술, *δικαστική*)에 대한 논의에서 찾을 수 있다. 아리스티데스는 레토릭과 사법기술을 비교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하면서, 사법기술이 레토릭과 동일한 본성을 공유한다는 점을 하지만 그것은 그가 입법기술에 대해서는 이미 인정했던 것인데 결코 받아들이지 않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레토릭은, 나는 거의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셈인데, 배심원이 사형집행관보다 훌륭한 정도만큼 바로 그 만큼, 사법기술보다 더 중요하고 값진 것이다. 연설가는 범죄사건을 심리하고 사안을 배심원들에게 넘긴다. 그리고 배심원단은 듣고 (배워)알고 나서 그 다음 차례로 사안을 공무(사형) 집행관에게 넘긴다. 그렇게 해서 배심원단은 공무(사형) 집행관과 연설가의 중간에 놓인다. 아리스티데스는 여기에서 연설가들과 비교하면서 배심원들을 분명히 무시하고 있는데, 필자가 보기에는, 만약 그것이 추첨으로 선출되던 고전 시대의 다양한 법정들에 참석했던 구성원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아리스티데스가 살던 당대의 특정한 한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즉 연설가들이 제대로 법률 교육을 받지 못해서 아는 것이 없다고 비판하곤 했던 별도의 직업 군을 이루는 집단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이것이 뜻이 더 잘 통한다. 아리스티데스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일이 실제로 있었던 것 같다. 배심원들 및 법률가들과 연설가들의 적대관계는, 법률가들을 마찬가지로 무시했던 퀸틸리아누스(Quintilian)를 보고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듯이, 분명 더 일찍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배심원들 및 법률가들이 법률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지닌다고 인정했지만, 그들이 (마르쿠스 카토(Marcus Cato), 무키우스 스카이볼라(Mucius Scaevola), 세르비우스 술피키우스(Servius Sulpicius)가 그랬던 것처럼) 또한 연설가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분명 더 열등한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

39) 예를 들면, 문단 215, 216를 보라. “본성상 이러한 성향을 타고난 사람들에게 대항하여 힘(강제력)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다.” 또는 “반대했던 사람들을 설득하고 바로 이러한 수단을 써서 개선시키는 것은 무엇보다도 필수적이었다.”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⁴⁰⁾ 어쨌든 이렇게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연설가의 편에서 법률 전문가를 업신여기며 다루는 일은 로마의 전통에 속한다. 이와 유사한 견해를 우리는 키케로의 『연설가에 대하여(De oratore)』에서도 발견하는데, 그곳에서 법률가는 단지 일종의 엉터리 퀘변가로 묘사되고 있으며 그의 얇 또는 기술은 레토릭의 뒤 쫓아다니는 보잘 것 없는 하녀로 묘사되고 있다.⁴¹⁾

결론－아리스티데스와 현대 이론들

이제 전체 논의를 요약해 보기로 하자. 아리스티데스의 이론에 따르면, 레토릭은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여타의 측면에서) 강한 자들의 힘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인간 공동체에 이성과 설득의 힘을 이끌어 들인 기술이다. 그것은 정의를 그것의 궁극적인 주제로 삼으며 정치적이고 법적인 논쟁에서, 이성에 바탕을 두고 설득을 통해서 작동하는, 의사소통을 위한 뼈대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서로 다른 견해와 이해관계를 지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인 인간 사회에서 이성(logos)과 설득이 없이는 질서도 안위도 정의도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레토릭은 인간 사회를 묶는 접착제이며, 레토릭을 단순히 설득기술이라거나, 심지어 더 심하게는, 그럴듯함(개연성)에 바탕을 둔 가짜 기술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결코 합당하지 않다(그런 식으로 규정된 ‘레토릭’은 필자가 논하는 레토릭과 전혀 무관하다).

법의 기원은 사실상 레토릭의 기원과 동일하다. 법은 그 본성상 레토릭의 성격을 지니며 레토릭과 동일한 목적에 기여하지만, 법은 실제로는 위에서 서술된 것과 같이 레토릭이라는 더 넓은 분과의 일부분이다. 법의 적용은 레토릭(이성과 설득)을 통해서 확보되며 이는 곧 법에 반대하던 자들이 결국에 가서는 법의 적용(집행) 과정 동안 도덕적으로 개선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레토릭의 교육적인 역할도 또한 법률 제정, 집행, 그리고 법의 적용 자체를 통해서 구제된다.

필자는 위에서 아리스티데스의 이론이 고전 시대의 위대한 사상가들(고르기아스, 이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이 제시한 입장과 생각들을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그 이론이 당대의 이론적 발전에 대한 반향을 담고 있음을 논하였다.

⁴⁰⁾ Quintilian, *Inst. Orat.* XII 3. 9.

⁴¹⁾ Cicero, *De oratore* I. 236.

더불어 필자는 이 이론이 독자적인 체계를 갖춘 논변으로서 성립할 수 있으며 논문 전체의 맥락에서 분리되어 실제 논쟁의 맥락에 적합하게 사용되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아리스티데스는 그의 시대에 이미 서로 헤어질 조짐을 분명히 보이기 시작했던 레토릭과 법의 긴밀한 관계만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보기에, 레토릭이 자유롭게 작동하고 입법과 사법의 영역에서 승리하는 경우에만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는 정의 자체를 또한 옹호하고 있는 것이라고 필자는 이야기 하겠다.

법과 레토릭이 서로 분리된 분과로 발전되었음을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들은, 우리가 위에서 보았듯이, 로마 시대에 특히 독립적인 법률 문헌들과 함께 등장했다. 이러한 발전은 중세에 완성되기에 이르렀는데, 그것이(법률문헌) 그 시대의 특수한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조건들로 인해서 대단히 선호되었기 때문이었다.⁴²⁾ 그리고 이러한 발전은 현대에도 이전 세기까지 계속해서 거의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여져 왔다. 법의 레토릭적 성격은 논리적인 구성에 기초를 두고서 사회의 (문화적, 정치적, 여타 측면의) 발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가치 중립적인 법학을 수립하려는 노력 속에서 잊혀져 왔다. 법과 관련된 문제에 답하려는 다양한 접근법들이, 법이 레토릭과 지니는 관계를 되살리려고 시도한 것은 실질적으로 20세기 중반 이후에 와서 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비록 이것이 그들의 일차적인 의도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현대 법학이 고대 그리스의 레토릭과 결부된 법 개념과 지니는 관계를 복원하였다. 그들은 도덕적, 사회적, 정치적인 쟁점들을 고려하면서, 예를 들면 감정의 역할이나 품성의 역할과 같은 고대 레토릭 이론에서 직접 차용해온 질문들을 법과 관련된 담론에 도입하였다.

법이 레토릭과 지니는 관계를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다시 무대 위에 등장시킨 이론들을 상세히 논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본 논문의 논의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필자는 가장 중요한 점들만 언급하기로 하겠다. 툴멩(Toulmin)의 이론은, 예를 들면, ‘사례에 따른 도덕(case morality)’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가 ‘도덕적 분류 체계(moral taxonomy)’라고 부르는 도덕적 추론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을 제안한다.⁴³⁾ 페렐만(Perelman)의 『새 레토릭(New Rhetoric)』

42) Anapol (위의 각주 29번을 참조하라), 15-16.

43) 다음의 것을 보라. Jonsen, A. R., and Toulmin, St., *The Abuse of Casuistry: A History of Moral Reasoning*, London 1989, 14; “우리는 유사한 사안들을 동등하게 다루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일반적인 원칙들뿐만 아니라 서로 같지 않은 사안들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다루는 일을 정당화하는 결정적 차이들도 마찬가지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은 레토릭의 실천적인 논변을 재발견하면서 그것이 법률 논변에도 유용함을 강조하고 있다.⁴⁴⁾ 또 다른 몇몇 이론들은 레토릭과 법을 다른 경로들을 통해서 한자리에 모아 놓는다. 예를 들어, 피이벡(Viehweg)은 토픽(topics; 문제 해결을 위해 생각을 창조해 내는 기술/ 레토릭적 창안)의 역할에 주목하는데, 그것은 법 해석에 서뿐만 아니라 (개별 사안에서) 그 때마다 활용 가능한 자료를 해석하는 일에서도 법률적 관점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⁴⁵⁾ 이러한 방식으로 피이벡(Viehweg)은 토픽(topics; 종래에 ‘논상론(論想論)’이라는 번역어를 사용해 온 경우도 있는데, 우리 말 번역어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학계의 공동 논의가 좀더 필요하다고 보고 번역어 확정은 잠정적으로 유보한다 - 역자 주)을 법률적 사고(추론)에서 중요 요소로 만들어 놓는다. 에쎈(Esser)의 이론은 가다머(Gadamer)의 선이해(*Vorverstandnis*) 개념을 법 분석에 적용하고 있다. 그는 선이해가 (즉 법 이전의 가치판단이 개입함을 지칭하는데, 그것이 법 해석자가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합의(*consensus*)와 관련해서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며 법률 체계의 기능은 전적으로 그것에 달려 있다)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에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다.⁴⁶⁾ 이러한 이론들은 (특히 페렐만(Perelman)과 피이벡(Viehweg)의 것은) 크게든 작게든 아리스토텔레스의 레토릭에 대한 견해를 끌어 들이고 있지만, 그들은 모두 아리스토텔레스가 윤곽을 잡아 놓은 더 넓은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비록 그 창시자 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는 못하겠지만). 법은 은연 중에 레토릭의 한 분야로 간주되고 있으며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법률 논변은 레토릭의 성격을 지니며 실천적으로 또 결국에는 문화적으로 결정된다고 보는 것을 가능케 해 준다. 실질적으로 법을 늘 변화하는 인간

도덕적인 문제들을 실제로 해결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의 필수불가결한 도구는, 그러므로, 도덕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유사성과 차이에 대한 상세하고 체계적인 지도이며, 그것은 도덕적 분류 체계(*moral taxonomy*)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44) 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논증과 레토릭의 역할은 모든 논쟁에서 커지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자기-숙고 및 의견교환이 합리적인 판단을 성취하도록 도움을 준다.” 다음의 것들을 보라. Perelman, Ch. *Justice, Law, and Argument: Essays on Moral and Legal Reasoning*, Translated by Kluback, W., Dordrecht 1980, 120-121. Perelman, Ch. and Olbrechts-Tyteca, L., *The New Rhetoric: A Treatise on Argumentation*, Translated by Wilkinson, J. and Weaver, P.,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69.

45) Viehweg, T., *Topik und Jurisprudenz. Ein Beitrag zur rechtswissenschaftlichen Grundlagenforschung*, Mnhen 1974.

46) Esser, J., *Vorverstandnis und Methodenwahl in der Rechtsfindung*, 2 Aufl., Frankfurt am main 1972.

사회와 유효하게 연결시키는 것은 이성(logos)과 설득(peitho)을 지닌 레토릭이다.

그러나 만약 아리스티데스가 이 경우에, 그 첫 발걸음부터 법과 관계를 맺고 있었던 고대 그리스 레토릭의 (널리 알려지지 않은) 주창자로만 보인다면, 또 다른 몇몇 현대의 이론들 또는 교육계의 동향이 아리스티데스의 것과 동일한 법 및 레토릭 개념을 공유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아리스티데스는 사실상 법률 제정, 법률 해석 또는 적용이 레토릭을 필요로 하는 절차임을 주장하였는데, 즉 제정되고 적용될 법과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힘이 항상 있어야 하며 이 힘이 바로 레토릭(그것은 정의상 사람들의 필요, 기대, 감정 등을 고려하는 이성과 설득을 동반한다)이라는 의미에서 레토릭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아리스티데스에게 레토릭 교육을 받지 않은 입법가들 또는 재판관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만약 도대체 누군가 그런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연설가들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우리 시대에 법과 관련된 직업들(변호사, 판사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레토릭 교육도 받지 않는데, 이는 법대 학생들이 그런 교육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 드러난다. 하지만 법과 레토릭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론의 압박과 실제 교육에서의 필요성에 대한 늘어난 인식으로 인해서, 새로운 추세는 점진적으로 형성되었는데, 특히 지난 20년 사이에 미국에서는 레토릭 이론이 완전하고 효율적인 법학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에 엄청난 기여를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고전 레토릭의 커다란 중요성을 보여주며, 그 렌즈를 통해서 법을 가르칠 것을 요청하며, 법을 레토릭으로서 가르치는 일의 장점을 보여준다.⁴⁷⁾ 교육적인 차원에서 법과 레토릭의 관계를 옹호하는 가장 최근의 논문들 중 하나에서는 이러한 장점의 몇 가지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고전 레토릭은 법률적 맥락에서 행해지는 복잡한 설득 과정을 가르치기 위한 자연스러운 틀을 제공한다……그것은 학생들이 모든 유형의 논리적, 감정적, 그리고 윤리적인 호소 방식들과 그것들의 설득력을, 그리고 그것이 왜 그러한지를 고려하도록 해 준다.

47) 다음의 것들을 보라. Robbins-Tiscione, Kr. K., ‘A Call to Combine Rhetorical theory and Practice in Legal Writing Classroom’ *Washburn Law Journal*, 50, 2011, 319-340. Berger, L. L., ‘Studying and teaching Law as Rhetoric: A Place to Stand’, *The Journal of the Legal Writing Institute*, 16, 2010, 3-64. Robbins-Tiscione, Kr. K., *Rhetoric for Legal Writers: The Theory and Practice of Analysis and Persuasion*, West (American Casebook Series) 2009.

레토릭 이론은 학생들이 법을 법률 작문 수업의 안과 밖 중간에 위치하는 것으로 이해하도록 부추긴다. 법률 작문에서 이론과 실체를 결합하는 것은 통합적으로 완전을 지향하는 것인데……그것은 학생들이 법률가 노릇하기(법 실무)의 인지적, 실천적, 윤리적,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을 고려하도록 장려하기 때문에 그러하다.”⁴⁸⁾ 뿐만 아니라, 법률교육에 이와 같이 레토릭을 활용하는 접근법을 주창하는 다른 이들은 법을 이러한 관점에서 학습(연구)하는 일은 사실상 더 넓은 인문학 분야가 되게 하는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⁴⁹⁾ 필자는 특별히 베르거(Berger)의 계획(프로그램) 보고서를 지목해 둔다. “법을 레토릭으로서 학습하는 일은 학생들이 목소리가 다양하고 끝이 열려있는 레토릭의 과정에, 그것을 통해서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참여하도록 해준다. 학생들이 법을 레토릭으로서 배울 때,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 가치(관), 자신들의 지각(양식)을 포함하는 다원적이고 복잡한 힘(설득력)을 이끌어 들이도록 격려를 받는다. 법률 논변들을 레토릭의 실행(공연)으로서 배우게 되면 법대 학생들은 언어와 상징 사용의 효과 및 의미의 틀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커진 의식은 그들이 레토릭의 측면에서 더 효율적인 연설가와 저자가 되게 해준다. 그들의 기술을 개선시켜 주는 것을 넘어서, 레토릭으로서의 법에 관여하는 일은 마술이라도 부리듯이 학생들의 타고난 상상력과 창조력에 물꼬를 터 주도록 도울 수도 있고, 그것은 그들이 대안이 되는 견해에 더 잘 귀 기울이고 자기 자신의 목소리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줄 수도 있다.”⁵⁰⁾

하지만 일반적으로 법을 레토릭의 일부분으로 취급하는 오늘날의 생각은 미국의 법학자 화이트(J. B. White)의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그의 말은 아리스티데스의 입에서 나왔을 법한 것들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법을 바라보는 가장 유용한 방식은, 흔히 학자들과 철학자들이 그렇게 하듯이, 하나의 법칙 체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레토릭의 한 분과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의미에서의 레토릭을, 법이 그것의 한 종(種)으로서 거기에 속하는데, 바라보는 가장 유용한 방식은, 흔히 레토릭이 그렇게 여겨지듯이, 실패한 학문으로 또는 야비한 설득 기술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공동체와 문화가 수립되고, 유지되며, 변

48) Robbins-Tiscione 2011 (위의 각주 47 참조), 339.

49) 레토릭에 주목하는 법학계의 새로운 추세에 관한, 또한 법률 교육에 레토릭을 포함시키는 일에 관한 유용한 참고문헌들은 Berger (위의 각주 47 참조), 5쪽 각주 9와 6쪽 각주 10에서 찾을 수 있다.

50) Berger (위의 각주 47 참조), 9-10를 보라.

모하는 가장 중요한 기술로 보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레토릭은 법과 연속적이며, 그것과 닮았으며, 정의를 그것의 궁극적인 주제로 삼는다.”⁵¹⁾

⁵¹⁾ 다음의 것들을 보라. White, J. B., ‘Law as Rhetoric, Rhetoric as Law: The Arts of Cultural and Communal Life’, *The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52, 1985 (3), 684-702, 684. White, J. B., *Heracles Bow: Essays on the Rhetoric and Poetic of Law*, London 1985, 28-48, cf. 37-40.

참고문헌

(아래에는 일차문헌만을 정리하였으며, 기타 이차문헌들의 서지사항은 해당 구절의 각주에 상세하게 표기하였다.)

Behr, C. A., *Aristides*, Text and Translation by Behr, C. A., vol. I, London and Cambridge, Mass. 1973 (Loeb Classical Library).

Behr, C. A., *P. Aelius Aristides, The Complete Works*, Translated into English by Behr, C. A., vol. I-II, Lipsiae 1986, 1981.

Behr, C. A. & Lenz, F. W., *P. Aelii Aristidis opera quae exstant omnia*, Edd. Lenz, F. W., et Behr C. A., vol. I, Lugduni Batavorum 1977-1980.

Dindorf, W., *Aristides, Ex recensione Guilielmi Dindorfii*, vol. II, Lipsiae 1829 (repr. 1964).